

우리 어린이도서는 지금...

# 2% 갈증, 어린이도서 담론의 문제 문학평론을 중심으로

유영진



1 어린이문학 평론가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뛰어난 감식안을 가진 평론가는 열손가락 안으로 꼽을 정도이다. 그러다보니 자연 어린이문학 평론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어린이문학이 '돈'이 되지 못했던 점, '돈'이 되지 못한다면 사회적 이슈를 제기할 만한 담론의 힘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지식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이들의 어린이와 어린이문학에 대한 무관심과 소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 밖에 여러 이유를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기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좀 더 이야기하겠다.

국문과는 대학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아동문학과나 전문 대학원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동시나 동화에 대해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린이문학 이론을 접할 일이 없다. 그 '특별한' 사람들이 동시나 동화로 박사 학위를 받아도 문제는 또 발생한다. 앞서 말한 대로 아동문학과나 대학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늘구멍만한 대

● 어린이문학과 평론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의 지위가 그만큼 주변부에 있기 때문이다.

학 교수자리 커녕 시간강사 자리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린이문학 평론가가 제도교육상으로 배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린이문학 평론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의 지위가 그만큼 주변부에 있기 때문이다. 20대 이상의 어른이 하루아침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천지개벽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린이가 사회 중심부에 위치할 가능성은 없다. 사회 권력과 기득권에 민감한 대학에서 어린이에 대한 선의로서 기존의 학부나 대학원을 정리하고 아동문학과를 설치하고 육성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시장의 요구에 따라 부분적으로 강좌가 개설되거나 사회교육원 같은 곳을 통해 수요를 흡수하려는 노력은 늘어날 것이다.)

어린이문학 평론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또 하나의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 평론은 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작품을 읽은 이들이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문학의 문제는 작품의 1차 독자는 아이들인데 평론은 오로지 '특별한' 어른을 향해 쏘여진다는 것이다. 평론은 문학작품이나 작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독자들이 선택해 읽는 것인데, 어

린이문학은 이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독자가 향유하지 못하는 평론, 일부 열의 넘치는 부모와 출판 편집자와 작가, 평론가들 사이에서만 소통하는 어린이문학 평론은 한쪽 발을 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2 여기서 어린이문학 평론이 빠질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자. 사실 요즘 어린이문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작품이나 평론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것은 어린이책 출판시장의 폭발적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추상명사로서의 어린이'는 사회적 위치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지만 '고유명사로서의 어린이'는 가정에서 지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 '특별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 '일등 제품'을 주겠다는 부모의 욕망은 키즈 산업 사전에 불황이란 이름을 삭제시켰다. 어린이문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 역시 이와 관련이 깊다.

책 사주는 부모를 위한 평론은 자칫 '작품에 등급 매기기', '책 골라주기'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런 '선별하기'는 '일등 제품'을 주겠다는 부모의 욕망과 결합될 수 있다. 수요자를 향한 평론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평론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상업주의와 결합하게 된다. 부풀려진 평론으로 작품이 갖고 있는 힘이나 미적 자질에 비해 과잉 수요가 창출된다면 그 권력화된 평론은 없는 것만 못할 것이다.

어른문학평론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문학평론 역시 텍스트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한계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포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또한 평론의 시각은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여 동시대적 문학 경향을 해명하기도 하며, 텍스트에 반영된 현실을 통해 사회를 향한 비판적 담론을 생성하기도 한다.

1970.80년대 '일하는 아이들'이란 이름으로 집약되는 이오덕의 어린이문학평론이 바로 이런 비판적 담론을 형성한 드문 예이다. 이오덕의 평론은 어린이문학의 문제를 통해 사회적 담론을 제기하고, 시대의 한계를 돌파하려 했다. 그래서 이오덕 작업의 성과는 다방면에서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어린이문학 동네는 이런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린이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된 대학, 언론 등 지식권력의 어린이문학 소외 현상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기성 어린이문학인들의 자기 성찰과 비판 정신의 결여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한다.

예외적인 분도 여럿 있지만, 과거 교과서 제도와 결합된 보수 아동문단 쪽의 많은 이들이 시대정신이나 어린이

● 이 글은 쓴 유영진은 서울목동초등학교 교사로 있다. 어린이문학 평론가, 민족문학 작가회의 및 교육문제연구소 회원이다. 2005년 2월 '몸의 상상력과 동화'란 글로 '창비어린이 신인평론상'을 받았다. 이원수 동화집 《나비 때문에》와 《별》을 엮었으며, 현재 평론집을 준비 중이다.

현실의 삶을 외면한 채 끼리끼리 추켜세우거나 상찬하는 자기도취에 빠져 담론의 힘을 잃게 한 것이다. (보수 아동 문단 쪽에서는 여전히 평론지나 월간지를 내고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과거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요, 보수 문단에 대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자기비판과 성찰의 부족은 현실에서도, 진보 문단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이런 비판에서 필자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

1970.80년대 개발 독재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이오덕의 평론과 문제의식을 교조로 이해한 이들은 2000년대의 문제의식을 담은 작품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외면하기도 한다. 진보 문단 내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치열한 자기비판과 토론이 광범위하게 이어지지 못한다. 단지 동네가 비좁다는 이유로, 또는 자기 그룹의 작가라는 이유로 평론가는 침묵하거나 무딘 칼을 휘두른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재 어린이문학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진보 문단도 보수 문단이 걸어간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칼을 휘둘러 피의 잔치를 즐기자는 것은 아니다. 칼끝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오덕이 시대와의 대결을 통해 해냈던 것처럼 평론가들은 아이들 삶의 변화, 아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치열한 탐구를 해야 한다.

어린이문학 평론가들은 동시나 동화의 채점자나 선별자가 아니다.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 지금 이 시대라는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을지, 거대한 과도와 폭풍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동시대적 이슈를 치열하게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담론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문학담론이 난마처럼 얽힌 우리 사회 문제를 풀어 가는데 주요한 축이 될 수 있다면, 어린이문학 평론이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어쩌면 쉽게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필**

● 이 글을 쓴 유영진은 서울목동초등학교 교사로 있다. 어린이문학 평론가, 민족문학 작가회의 및 교육문제연구소 회원이다. 2005년 2월 '몸의 상상력과 동화'란 글로 '창비어린이 신인평론상'을 받았다. 이원수 동화집 《나비 때문에》와 《별》을 엮었으며, 현재 평론집을 준비 중이다.